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0월 26일

뉴욕주, JFK 국제 공항의 검역 규제에 대한 사실 자료 발표

뉴욕주는 오늘 에볼라에 대하여 JFK 국제 공항에 있는 뉴욕주 검역 절차 담당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검역은 맨 처음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atrol)가 진행합니다. CBP는 승객이 최근 영향을 받는 3개 국가 중 하나에 여행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승객에 대한 2차 검역을 실시합니다. 영향을 받는 3개국 중 한 곳에서 오는 여행자에게 열이 있거나 에볼라에 노출된 것이 신고될 경우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검토를 실시합니다.

추가 검역은 뉴욕주 보건부와 뉴욕시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직원이 실시합니다.

시나리오 1: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에게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 있으면 해당자는 의료 수송장비(보호장비 착용)를 통해 뉴욕주에서 지정한 뉴욕시 병원 중 한 곳으로 이송되어 에볼라 환자 치료를 위한 추가 분석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시나리오 2 :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해당자는 개인 차량(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소 지정)을 통해 21일 동안 자신들이 격리될 가정으로 이송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타 숙박 시설이 제공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뿐 아니라 개인이 검역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일 2명 이상의 지방 공무원들이 불시에 방문합니다(주 보건 당국과의 조정에 따름).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소는 필요에 따라 식품, 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의 후원을 받으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한 곳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다 돌아온 모든 보건 의료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에서 지급하는 3주치 임금을 받습니다. 후원기관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의료 전문의와 뉴욕이 정한 격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인들은 뉴욕주가 제공하는 21일치의 재정 지원(예: 임대료/모기지 및 일당)을 받습니다.

검역 대상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친구의 경우 지역 보건소의 승인을 받으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로부터 온 여행객이지만 증상이 없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면, 그러한 케이스는 케이스별로 처리됩니다.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소는 최소 21일의 잠복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루 두 번 온도 및 기타 증상을 감시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개인은 자동으로 검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